

##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법대
- 런던대학교 정경학부 대학원

### 「경력사항」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상사법)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위장
- 한국해양방재조합 법률고문
-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대표
- 한국해법회 회장
- 한국선급 법률고문
- 제11회(1970년) 사법시험 합격



채 이 식

## I. 들어가며

저는 사법시험을 위하여 저의 모든 젊음과 정열을 바쳤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천재적 두뇌를 가진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두둑한 경제력의 뒷받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허용된 최대의 여건 속에서 성실과 인내로서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난공불락의 거성처럼 보였고, 나와는 영원히 유리된 피안의 세계와 같았던 사법시험의 합격이라는 사실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성실과 인내로서 꾸준히 노력하는 전자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안겨 줄 것이며, 절대로 영원히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명석한 두뇌와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패를 거듭하는 수험생들이 너무도 많기에 불과 2년 동안의 공부로서 3학년 말에 최연소자로 합격한 저는 아무래도 행운아인가 봅니다.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을 위하여는 법학의 초년병인 제가 외람되게 일가견을 펼 처지도 못되므로 주로 현재 법과에 재학 중인 분을 위하여 저의 소신을 피력할까 합니다. 먼저 제가 겪은 경로의 간단한 설명과 아울러 방법론을 덧붙이겠습니다.

## II. 법대에 진학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공부한 학과는 의과대학에 필요한 과목이었습니다.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의사가 되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알았고, 이 때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의 시험과목을 살핀 결과 고려대학교에 제가 선택한 세계사가 있기에 옳다 하고 원서를 냈습니다. 고대면 법과가 쓸만하다기에 법과를 택했으며, 기왕 법대에 입학했다 하면 고시도 봐야 할 것이고, 그 무지무지하게 어렵다는 고시도 죽어라 하고 파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대에 입학할 때부터 범접인에 매력이라든가 확고부동한 결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시골 막연한 분위기에 젖어 고시를 보아야 한다는 의무감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시작하는 데도 특별한 고려없이 당연한 사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대학에 입학하신 분들은 사법시험을 칠 것인가 3급시험을 칠 것인가 또는 다른 방향으로 진출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주위에서나 동료들이 하나까 “저보다 못하지 않은 내가 어찌 처사(處士)로 남아 있을 소냐”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법시험은 판·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이지, 이력서에 쓰거나 국회의원선거 때 포스터에 쓰려고 만든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수단에 불과하지 수년씩 피땀 흘려 공부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III. 대학 1학년

대학 1학년은 제가 살아온 중에서 가장 고난을 겪었던 해였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경제적 곤란으로 불쌍한 자들이 천대받기란 참으로 고역이었습니다. 신입생 초기도, 서울생활의 기쁨도 송두리째 짓밟히고, 퇴색어린 얼굴에 분노에 찬 두 눈만 붙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여의치 못했고, 장학금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기동 137번지의 자취생활도 지긋지긋했습니다. 시골에나 가서 순의 손을 붙잡고 초등학교 선생이나 하면서 농사짓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번이었습니다. 이럴 때면 학교 뒷산 바위 위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곤했습니다. 실컷 울고 난 뒤야야 눈 앞에 펼쳐지는 것은 저멀리 요란히 움직이는 차들, 눈앞에 그림과 같은 학교, 그 속에서 발밑에 있는 여학생 회관으로 사뿐사뿐 걸어오는 미니 스커트의 아가씨 뿐이었습니다. 현대화의 물결이 몰아치는 서울에서 나만이 유린된 것 같았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낙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시골에는 따뜻하게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즐거운 방학이 못되었습니다. 마음의 안식처가 없어서 여기 저기 쏘다니다가 올

때 갈 때 없어 서울로 일찍 돌아 왔습니다. 지겨운 서울도 내가 설 땅은 그 곳 밖에 없었습니다.

2학기도 시작되고 어쩔 수 없이 학교는 또 나가야 했습니다. 이 때에 예비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상외의 조기공고로 보아서 붙으면 사시나 하고, 안 붙으면 포기하고 대학생살이나 잘 꾸러보자 하는 심산이었습니다. 실력보다 운명을 점치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고, 사시가 눈 앞에 닥친 것 같고 관심도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법률책을 구경한 것은 고등학교 때 원서를 내놓고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형법각론(이건호)이었습니다. 첫 구절부터 '국토를 참절(僭削)하고...' 나오는데 눈을 뒤집어 써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어 처음으로 몇 권의 법률책과 경제학책을 들고 상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전 페이지를 두 번 정도 읽었습니다. 내용보다는 한자(漢字)나 단어를 익히는 정도였습니다. 1학년 2학기 때에 배웠던 경제원론을 두 번 정도 읽은 것은 그 후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 IV. 대학 2학년

2학년에 들어서 법률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커리큘럼에 따라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빠지는 날은 아주 적었고,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충분한 잠과 취사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학교수업의 완전이론에 바쳤습니다.

이때에는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게 되었고, 따라서 경제사정도 비교적 호전되어 자유스럽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학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다 못 배운 부분을 보충하고, 전체를 3회독 정도 하였습니다. 겨울방학은 3달의 장기이므로 2학기 때 덜 배운 부분의 보충과 1학년 과목 전체를 3회 정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기본 3과목의 완전한 이해가 되었고, 실력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기본 3과목을 학교수업에 병행하여 완전히 이해한 것이 그 후 조기합격의 여건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 V. 대학 3학년

3학년 1학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공부도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소송법, 행정법 I, 채권총론, 상법 등을 공부했습니다. 이 중 채권과 상법은 작년도에 몇 번씩 읽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9월의 방학이 어지간히 끝날 때는 이들에 대한 공부도 끝났습니다. 9월과 10월은 데모 때문에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행정법 II, 채권각론, 수포법 등을 공부했으며, 이 것으로는 부족하기에 그 후 학기말 시험 때 공부를 더 했습니다.

그 후 4개월 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으며, 전과목 4회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에 대한 자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 VI. 대학 4학년의 합격

2월 1일, 경제원론과 국제사법을 선택하여 치른 1차시험은 영어의 고전으로 발표가 난 14일까지 한숨만 쉬었습니다. 2차시험장은 갈 기력이 없었으며, 남은 14일이나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나 18일부터 24일까지 있는 학기말 시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4일 기말시험을 마치고, 여관을 법대 앞으로 옮겨 결전 4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루마리 시험지가 칠판에 걸렸을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가벼운 스릴도 느꼈습니다. 종이 나자 밑으로 다라락 떨어지는 그 품이 가관이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를 보니 '법치주의'와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였습니다. 기가 꼭 막혔으며, 사법시험이 이런 것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격기에서 본 소위 기상천외의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문제집을 보지 않은 것이 탈이었습니다. '법치주의라 함은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다'로부터 시작하여 황설수설하고, (2)번 문제는 조문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처음 보는 시험이라 당황도 했고, 글씨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나의 성의를 참작했던지 60점.

행정법, 전체적으로 공부한 나에게 좀 유리하여 무난, 65.66점.

다음날 상법부터는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현물출자는 뽑은 문제에 속하였고, 어음과 실질 관계도 무난하여 66점. 민법도 큰 실수 없이 60.66점.

다음날 민소도 이행의 소는 뽑았던 문제이고, 보조참가인의 지위도 책은 그런데로 베꼈으나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던 관계로 64점. 형법은 법인의 형사책임이라는 등도 보도 못한 문제로 47점.

형소도 엉겨서 63.66점.

맞춘 문제는 2개, 평균 61.02로 14위란 비교적 예상 밖의 성적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는 그저 좋았고, 그 후 한 달은 아주 포기하고, 다음 시험을 위해 민법 서브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막상 발표일이 되니 불안하고 70명 정도 합격시킬 것이라는 풍문에 속아 흑시하고 기다렸습니다. 30일날 사정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로 총무처에 문의한 결과 33명이 합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이름이 없는 것은 뻔하다고 생각하여 전화를 끊고 영화관에 갔다가 영화가 끝나고 허탈한 마음을 달래면서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총무처 앞 계시판에 갔더니 의외로 그 곳에는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때는 이미 친구들이 하숙집을 들린 뒤였습니다.

## VII. 마치며

저는 철저한 도서관파요, 강의파였습니다. 공부한답시고 절로는 기본적이 없으며, 학교 강의는 한 시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연습과 복습을 착실히 하고, 학교수업은 땀방이 치지

않고, 말 술은 마시지 않으며, 당구를 가끔 즐기며, 여자를 멀리 한다면 합격은 누구에게나 보장될 것입니다. 만일 이 5적을 멀리하지 않다가는 합격 후의 푸짐한 술잔치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단기간 내에 열심히 해서 시험치면 틀림없는 것이니, 사법시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남달리해야 합격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2학년 때부터 착실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문도 넓어졌으니 열심히 공부하셔서 법과대학에 다니는 분 전부가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합격을 위하여 음양으로 도왔던 여러 친지 동료들에게 감사드리며, 고려대학 4학년 동기 여러분에게 다음에 틀림없이 합격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저의 수험생활을 지도하시던 K형이 12회에 합격했으며, S형도 다음 시험에는 틀림없이 합격될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이 글을 저승에 계시는 어머님에게 전하고 싶습니다.